

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와 변화

김 혜 정 I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 연구원

1. 들어가며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산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악화는 비단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문제이기도 함
- 청년층¹⁾이 근로생애 시작 시기에 경험하는 실업 또는 장기 미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단축하고 낮은 임금에서 일할 확률을 높이는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 등 심리적 측면으로도 악화되는 실정임
 - 노동력의 유희화²⁾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
 -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상실
 - 노동시장 숙련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정착도가 저하되고 이는 다시 노동력의 유희화 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늘어가는 취업 준비 기간과 불안심리, 좌절감으로 인한 실망노동자 효과³⁾ 발생
- 이러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악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와 청년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제도의 차이, 숙련편의적인 기술변화, 노동시장의 이

1) 청년층의 정의 : 일반적으로 OECD와 UN등 국제기구에서 적용되는 청년실업률의 기준은 15~24세이며 지난 일주일 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이나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 등을 감안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15~29세로 정의함

2) 이용 가능한 노동력이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등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을 말함

3) 구직활동 중 탐색비용, 채용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것. 즉, 현재의 임금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경기가 후퇴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부 구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남. 이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경기가 후퇴할 때 가구주 외의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실업률을 높이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함(부가노동자 효과)

중구조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함⁴⁾

-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 : 청년 실업이 다른 계층에 비해 경기에 탄력적임
- 청년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제도의 차이 : 최저임금제와 단체교섭 등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함
- 숙련편의적인 기술변화 : 비숙련근로자가 다수인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발생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고용형태 다양화로 심리적 불안감 조성
- 노동시장 이행지원제도의 차이 : 노동시장과 교육간의 연계 강화 정도에 의한 차이

- 허나 지금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기변동을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과 더불어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노동시장 이행 장기화, 취업 형태의 불안정성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현상임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청년층 취업난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 청년층의 취업과 실업, 비경제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러한 추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된 것인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파악하고자 함

2. GRDP와 취업자수로 바라본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연령별 취업자수

- '90년대 중반까지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97년을 기점으로 청년층은 감소하고, 중장년층의 취업자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청년층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15세~29세를 보면 1990년 중후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경제 회복세보다도 더 더딘 모습을 나타냄
 - ※ (청년층) '91년 181천명 → '97년 189 → '03년 227천명 → '09년 138천명 → '12년 162천명
 - 반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취업자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 (40세~49세) '91년 167천명 → '97년 181천명 → '03년 227천명 → '09년 253천명 → '12년 264천명

4) 한국노동연구원(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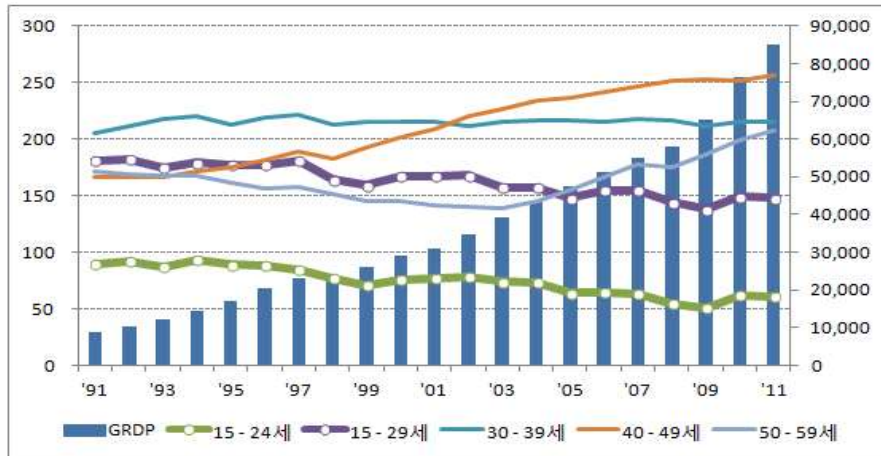
- 위의 논의를 연장하여 경제성장과 취업자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97년 외환위기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으로 위축된 경제회복 이후 서서히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으로 경제회복과 취업자수가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차이는 있으나 두 번의 충격이 취업자수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짐
 - 내부요인에 의한 충격인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한 GRDP와 취업자수는 다소 느린 회복을 보임
 - 이는 외환위기 당시 신규채용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쉽고, 선입후출의 원리에 의해 젊은층이 미취업 상태에 오래 지속되거나 실업이 대거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됨

2) 전국과 충남지역 연령별 취업자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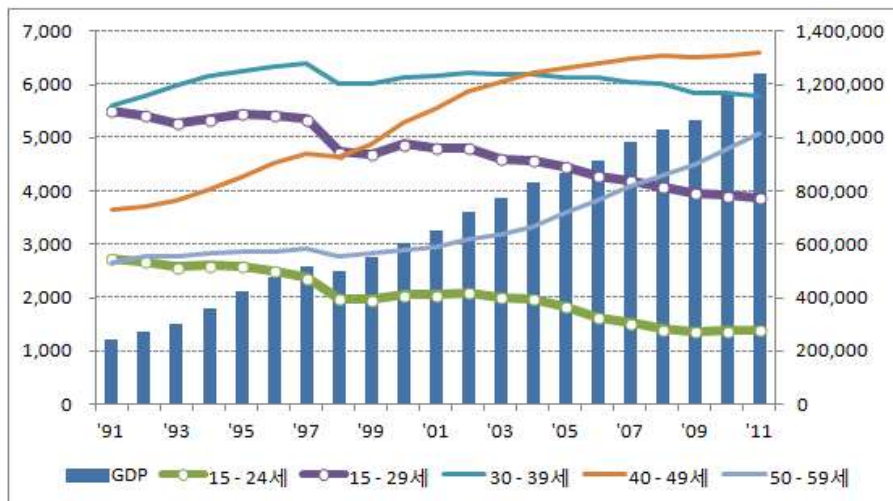
- 전국과 충남지역의 비교한 결과, 중·장년층의 노동시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청년층 노동시장은 최근 들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림에서 보여 지듯이 전국과 달리 충남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청년층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반전됨
 - ※ (전국 청년층, 단위: 천명) '07년 4,202 → '08년 4,084 → '09년 3,957 → '10년 3,914 → '11년 3,879
- 충남의 노동시장은 공통적으로 경제의 충격이 가해진 시점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전국보다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 충남의 연령별 취업자수를 보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위축되었다가 회복되는 모습
 - 전국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중·장년층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시장 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은 감소세, 중·장년층은 증가세라는 모습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임

<그림> 경제성장과 연령별 취업자 현황(단위 : 십억원, 천명)

[중 남]



[전 국]



- 이러한 현상은 각 연령별 취업자수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청년층에서는 음의 상관관계, 중·장년층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15세~29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0.898의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4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0.953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아주 상이한 모습이 나타남

- 또한 청년층의 음의 상관관계는 최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다만 전국과 비교했을 때, 충남지역의 청년층 취업자수와 경제성장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나타냄

<표> 경제성장과 연령별 취업자수의 상관관계 분석

		15-24세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전국	GDP	-0.953	-0.957	-0.128	0.964	0.932
충남	GRDP	-0.898	-0.886	0.066	0.953	0.578

3.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추이 변화

- 최근의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0여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살펴봄
 - 경제활동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음
- (취업자) 최근 10여년 간의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00년 이후 17%~18%를 보였으나 '08년 이후 14%로 하락하였고 최근 15.3%('12년)로 증가하였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시작되는 시기인 25세~29세 청년층의 노동시장 비중은 최근까지도 감소하는 모습
 - ※ (24세~29세) '00년 10.2% → '05년 8.9% → '11년 8.7% → '12년 8.6%
 - 대학진학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24세~29세 청년층의 취업자수가 15세~29세 취업자수보다 청년층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봤을 때 충남의 청년층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수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충남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됨

○ (실업자) 충남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은 약 6~9% 범위에 존재하고,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가장 높은 9%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실업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 15세~29세까지 청년층은 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20세~24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을 함

- 최근 위기인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실망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짐

※ (20세~24세) '00년 45천명 → '06년 35천명 → '09년 43천명 → '12년 45천명

- 즉, '08년 당시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로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감으로 인해 실망노동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
- 실망노동자 효과로 인한 청년층 노동의 유희화는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의 인적자본까지 감가상각하는 인적자본의 왜곡을 발생시킴

<표>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추이 변화(단위: 천명, (비중.%))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취업자	168 (0.93)	157 (0.92)	157 (0.93)	148 (0.93)	155 (0.94)	155 (0.95)	144 (0.94)	138 (0.92)	149 (0.93)	148 (0.93)	162 (0.95)
실업자	13 (0.08)	13 (0.08)	11 (0.07)	12 (0.08)	10 (0.06)	9 (0.06)	9 (0.06)	12 (0.09)	11 (0.07)	11 (0.07)	9 (0.06)
비경제활동인구	193 (0.52)	185 (0.52)	174 (0.51)	177 (0.53)	179 (0.52)	184 (0.53)	196 (0.56)	200 (0.57)	191 (0.54)	193 (0.55)	205 (0.55)

주1) 취업자 비중은 $\frac{\text{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이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frac{\text{비경제활동인구}}{\text{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주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 충남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세부터 5세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 지난해를 기준으로 각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률과 실업률은 20세~24세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습을 보임
- 다만,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20세~24세) 이는 직업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 등 마찰이 존재함을 의미함

- 학교의 중도포기, 노동 수요와 공급사이의 미스매치, 근로자들의 눈높이 조절 등이 주원인으로 생각되며, 25세~29세 실업비중이 낮아지는 것에 비추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줌

○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학업과 군대 등으로 인해 20대 초반에 높게 나타나고 있고 25세~39세까지는 약 4명 중 한명이 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U자형의 모습으로 25세 이상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 현상은 1990년대 이후 경제의 불안정성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명 무업자(neet)⁵⁾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30세 이후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여성의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에서 퇴장하면서 나타나는 영향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나 20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노동시장에서 청년무업자(NEET)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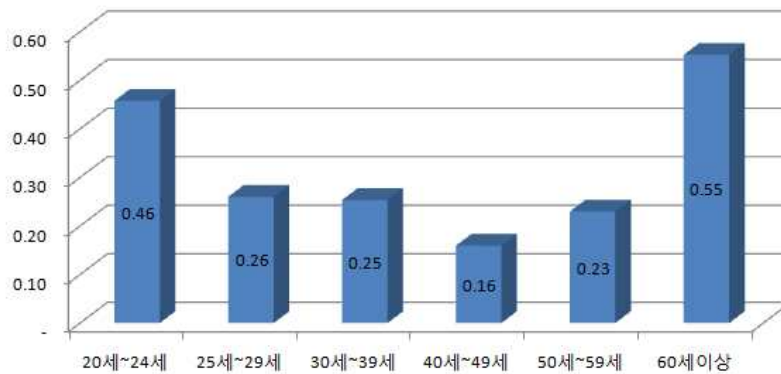
- 취업률과 실업률의 하락 : 특히, 실망노동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낮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본 모습을 감추고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청년무업자 문제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위로 인식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됨
- 이러한 지표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률과 더불어 고용률을 고려해야 함

5)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을 가리킴.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두문자어임. 니트족이라는 말은 영국정부가 1999년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유래된 말로 블레어 정권의 정책 슬로건의 하나이기도 함

<표> 2012년 연령별 취업률과 실업률

	20세~24세	25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취업률	0.94	0.97	0.98	0.98	0.98	0.98
실업률	0.06	0.03	0.02	0.02	0.02	0.02

<그림> 각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4. 정책적 제언

- 충남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전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와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시장 활성화만을 바라볼 순 없음.
 -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적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함
- 충남의 청년층 노동수요 요인 지원 정책 마련
 -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공급 및 인프라 구축 측면에 치우쳐 있음.
 -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발굴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지역의 청년고용에 특화된 업종별, 직종별, 직무별 수요 예측
- 충남의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요인 강화
 -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층의 역외 유출 문제를 공급측면이 아닌 수요측면에서 접

근할 필요성 대두

- 유능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시장논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쟁이 필요
- 이를 위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이 중요함. 물론 현재 지역맞춤형 인재 육성,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
- 실제로 대구광역시의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같은 프로젝트급 지원책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행사위주 사업이 아닌 대학생들과 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로 뛰는 정보 제공(대학교내 관련전공 강의실 앞에 기업 정보 부스 설치 등 실질적인 기업 정보의 제공)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 등의 마찰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보다는 정성적 성과에 기반한 사업이 필요함을 완화할 수 있음

-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일부 직종에서의 고임금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의중임금의 상승요인). 이러한 박탈감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미스매치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빈번하게 나타남.
- 금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한 직종별 이점을 부각시키거나 개별주체와 기업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참고문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파악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대구광역시(2013),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
국가통계 홈페이지(<http://kosis.kr>)